

♣산야교회 교회증축 및 식당 건축을 위한 한주일 헌금 청원♣

※36612 안동시 와룡면 산골안길 31-8. 전화:(054)856-7149, 이형근목사:010-9376-0691.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93회 경안노회시에 저희 산야교회 교회증축 및 식당 건축을 위하여 한주일 헌금을 결의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는 이때에 황송하옵게 한주일 헌금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산야교회는 안북시찰에 속한 미자립교회로 현재는 등록 교인이 17명으로 모든 성도가 분기별로 팝콘과 봉어빵을 굽어서 나누면서 지역 동민들을 섬기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열심히 전도에 힘을 기우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4명의 새 신자가 등록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비좁은 사택에서 20여 년간 식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신자가 등록되고 성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좁은 사택에서는 식사 준비가 어려워져 부득불 교회를 증축 수리하고 교육관 겸 식당과 교회 계단공사와 화장실 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미약한 미자립교회(2022년 결산 1,800만원)로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경안노회에 한 주간 헌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저희 산야교회가 부흥되고 자립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주일 헌금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총공사비 약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23년 4월 25일

산야교회 이형근 목사 외 성도 일동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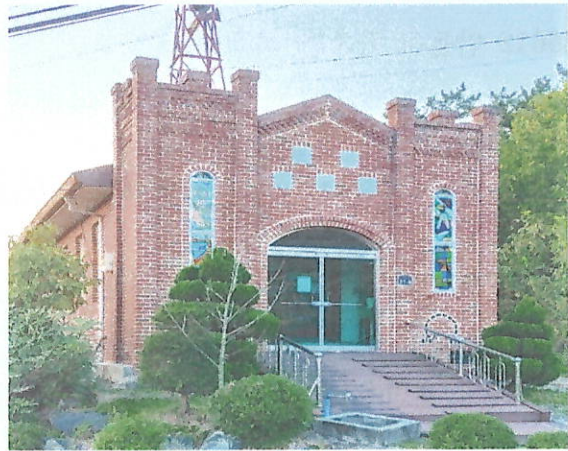
※계좌번호; 우체국 703439-01-005855. 산야교회

농 협 734-02-229861. 이형근

※※산야교회 식당과 계단공사 화장실 수리 건축 예정 입니다



※식당 기초공사 중입니다-



※※※산야교회※※※



※※※식당 기초공사 중※※※



※※※화장실 수리 건축 예정※※※



※※예배 의자 위에서 식사중입니다

‘주산지교회 지붕 누수로 인한 예배당 수리 한 주일 헌금 청원 글’

37438 청송군 주왕산면 부동로 1035(이전리) ☎(054)874-2814 김창현 목사010-5502-9874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제193회 노회에서 저희 ‘주산지교회 한 주일 헌금 청원’ 결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산지교회는 비록 적은 수의 교인이지만 교회에 대한 큰 애정과 기도로 1910년 창립돼 11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1978년 증축되어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탑부 외부 벽의 균열과 지붕 틈새로 인한 누수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 습기가 많이 생겨 곰팡이 냄새와 리모콘 작동이 원활히 되지 않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습기의 양은 여름철 제습기 사용 시 하루 2통 이상의 물이 나오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마을 특성상 교인들의 나이가 대부분 75세 이상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기관지가 약한 신체 특성상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설물이 습기로 인해 뒤틀어져 문을 열고, 닫는데 힘이 듭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연로한 교인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미 그 과정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인들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좋지 않는 환경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를 지키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을 넘어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마을 복음 전도를 위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한 자리를 지켜온 주산지교회 교인들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지만 이번만은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한 주일 헌금에 참여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안노회 산하 모든 교회의 부흥 발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 농협351-0840-1725-23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산지교회

2023년 4월 25일

주산지교회 김창현 목사 외 성도 일동

『누수 원인과 결과』

(1978년 교회당 준공)

